



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.kiep.go.kr 137-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-4 2007년 9월 18일

[상세 내용]

제07-43호

통상환경 현황 및 전망(2007년 2분기)

송영관 무역투자정책실 WTO팀 팀장 (ysong@kiep.go.kr, Tel: 3460-1073)

송백훈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팀장 (bsong@kiep.go.kr, Tel: 3460-1208)

이경희 무역투자정책실 FTA팀 전문연구원 (khyi@kiep.go.kr, Tel: 3460-1083)

주요 내용

□ DDA 동향 및 전망

- 2007년 1월 협상 재개 이후 2007년 말 협상 타결을 목표로 다자 협상과 주요국(G4: 미국, EU, 인도, 브라질) 간 소규모 협상이 제네바에서 동시에 진행되었으나, 6월 19일~21일 독일 포츠담에서 개최된 G4 각료회의가 미국의 농업보조금 감축 문제와 개도국의 공산품 관세감축 수준에 대한 이견으로 결렬됨.
- G4 각료회의 결렬 후 파스칼 라미(Pascal Lamy) WTO 사무총장과 농업 및 비농산물 시장 접근(NAMA: Non-Agricultural Market Access) 협상회의 의장 주도하에 제네바 차원의 다자 협상이 계속 진행되어 7월 17일 농업 및 NAMA 협상 쟁점에 대한 의장의 세부원칙(modalities) 초안이 회원국에 배포되었으며, 9월에 협상이 재개될 예정임.
- 그간 DDA 협상 진전을 가로막고 있었던 가장 큰 쟁점은 농업이었지만, 6월 G4 각료회의 이후 NAMA가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대두된 가운데 브라질 및 인도 등 개도국이 공산품의 관세감축 확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DDA 협상 전망이 밝지만은 않음.

□ 지역무역협정(RTA) 동향 및 전망

- 2007년 7월까지 WTO에 통보된 RTA는 총 205건이며, 2분기에는 한국·미국 FTA, 일본·태국 FTA를 포함하여 총 6건의 RTA가 타결됨.
- 일본과 칠레의 FTA 협상 추진이 두드러짐. 일본은 지난 4~5월경에 호주, 인도 및 스위스와 각각 FTA 협상을 추가로 개시하였으며 칠레는 베트남, 말레이시아, 호주 등의 국가들과 각각 FTA 협상을 개시함.
- 세계 각국은 경제발전 도모의 수단으로 FTA를 체결하는 등 지역주의에 비중을 두고 있어 당분간 각국의 활발한 FTA 추진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.

1. DDA 전망

가. 최근 동향

- 2007년 1월 협상 재개 이후 2007년 말 협상 타결을 목표로 다자 협상과 주요국(G4: 미국, EU, 인도, 브라질)간 소규모 협상이 제네바에서 동시에 진행되었으나, 6월 19일~21일 독일 포츠담에서 개최된 G4 각료회의가 미국의 농업보조금 감축 문제와 개도국의 공산품 관세감축 수준에 대한 이견으로 결렬됨.
- 미국은 자국의 농업보조금 총액을 170억 달러로 낮출 것을 제안한 반면, 인도와 브라질은 120억 달러로 대폭 감축할 것을 요구함.
- 미국과 EU는 개도국의 관세를 18% 이하로 낮출 것을 요구하였으나, 인도와 브라질은 30%를 고수함.
- G4 각료회의 결렬 후 라미 WTO 사무총장 및 농업, NAMA 협상회의 의장 주도하에 제네바 차원의 다자 협상을 계속 진행하여 7월 17일 농업 및 비농산물 협상 쟁점에 대한 의장의 세 부원칙(modalities) 초안을 회원국에 배포하였고, 9월에 협상을 재개할 예정임.
- 농업협상그룹 팔코너 의장은 무역왜곡보조총액 50~85% 감축(개도국은 2/3 수준), 최상위 관세구간 66~73%(개도국 44~49%) 감축을 제안하고, 민감품목은 유관세 세번의 4% 또는 6% (개도국은 선진국의 4/3 수준) 이내로 제한하였음.
- NAMA 협상그룹 스테펜손 의장은 이중계수 스위스공식을 기초로 선진국은 8~9, 개도국은 19~23의 계수를 제시하면서 개도국 신축성조항(조정계수+3)을 추가함.

나. 협상 전망

- 그간 DDA 협상 진전을 가로막고 있었던 가장 큰 쟁점은 농업이었지만, 6월 G4 각료회의 이후 NAMA가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대두된 가운데 브라질과 인도 등 개도국이 공산품의 관세감축 확대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DDA 협상 전망이 밝지만은 않음.

- 농업의 경우 면화보조금에 대한 감축 부분은 미국이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, EU의 관심사항인 지리적 표시(GI) 및 G33이 주장하는 특별품목에 대해서 의장초안이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세부원칙 합의 도출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됨.
- NAMA의 경우도 초안에 나타난 공식계수(선진국 8~9, 개도국 19~23)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미흡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, 대체로 지금까지의 협상에서 논의된 중간점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, 브라질 및 개도국 그룹인 NAMA 11은 이번 초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음.
- 또한 DDA 협상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국내정치상황이 DDA 협상 타결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.
- 현재 미국 의회는 미국 행정부에 DDA 협상을 위한 권한(TPA)을 부여하기를 거부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내년 말 미국 대선 전에 변동될 가능성은 거의 없음.
- 다만 DDA 협상 결렬이 세계 무역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, 미국이나 EU, 브라질, 인도 등 주요국이 이 협상 결렬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점은 DDA 타결 가능성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.

2. 세계 지역무역협정(RTA) 추진 동향 및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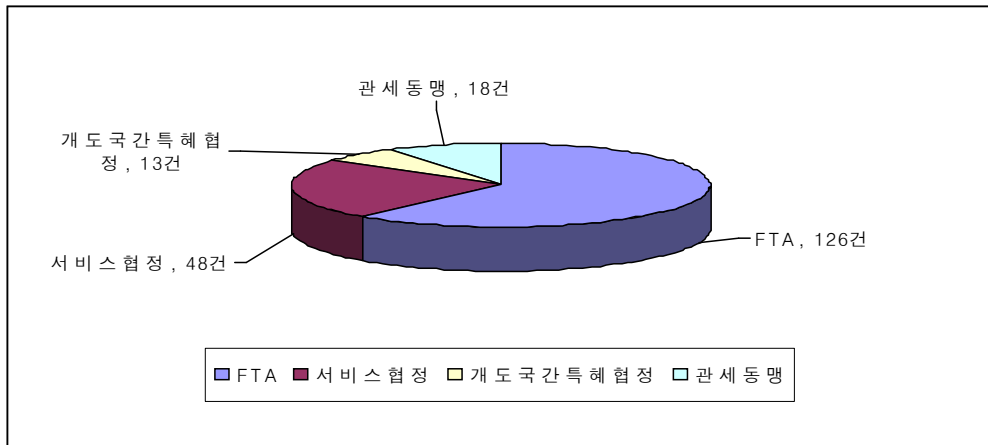
가. 세계 RTA 추진 동향

- 2007년 7월 현재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(RTA)은 총 205건으로, 이 중 자유무역협정(FTA)이 126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, 서비스협정이 48건, 개도국 간 특혜협정(Preferential Arrangement)이 13건, 관세동맹(Customs Union)이 18건임.
- 지난 3월 통계(194건)에 비해 신규 추가된 협정은 FTA가 7건, 서비스협정이 4건이며, 구체적으로 EFTA·이집트 FTA(2007년 8월 1일 발효), SACU(2004년 7월 15일 발효),¹⁾ 칠레·중국 FTA(2006년 10월 1일 발효), Trans-Pacific SEP (2006년 5월 28일 발효),²⁾ 인도·싱가포르 FTA(2005년 8월 1일 발효), 파나마·싱가포르 FTA(2006년 7월 24일 발효), EC·알바니아 FTA(2006년 12월 1일 발효) 등이 이에 해당함.

1) SACU(남아프리카 관세동맹): 보츠와나, 레소토, 나미비아, 남아프리카공화국, 스와질란드 등 5개국 간 관세동맹

2) Trans-Pacific SEP: 브루나이, 칠레, 뉴질랜드, 싱가포르 등 4국으로 구성된 전략적 경제동반자협정(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).

그림 1. 유형별 지역무역협정 체결 현황 (2007년 7월 18일 현재)



자료: WTO 홈페이지(<http://www.wto.org>).

표 1. 발효 중인 RTA 건수(2007년 7월 18일 현재 WTO에 통보된 RTA 기준)

| | 2000년 이전 | 2000 | 2001 | 2002 | 2003 | 2004 | 2005 | 2006 | 2007 | |
|----|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|
| | | | | | | | | | 3월 | 7월 |
| 신규 | - | 10 | 18 | 15 | 15 | 23 | 16 | 13 | 3 | 11 |
| 누계 | 81 | 91 | 109 | 124 | 139 | 162 | 178 | 191 | 194 | 205 |

자료: WTO 홈페이지(<http://www.wto.org>).

- 한편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 이외에도 다수의 FTA가 지난 2/4분기 동안 추가적으로 타결되었거나 새로 협상이 개시되었는바, 주요 현황은 다음 [표 2]와 같음.

표 2. 2007년 2/4분기 이후 세계 RTA 신규 타결 및 개시 동향

| 협상타결/서명/발효 | 신규 개시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- 한국·미국 FTA(07. 4. 2 타결) | - 칠레·베트남 FTA(07. 3. 29 개시) |
| - 일본·태국 EPA(07. 4. 3 서명, 6. 13 비준완료) | - 일본·호주 FTA(07. 4. 27 개시) |
| - 대만·엘살바도르·온두라스 FTA(07. 5. 21 서명) | - 일본·인도 CEPA(07. 4 개시) |
| - 캐나다·EFTA FTA(07. 6. 7 타결) | - 칠레·호주 FTA(07. 4 개시) |
| - 온두라스·파나마 FTA(07. 6. 15 서명) | - 중국·아이슬란드 FTA(07. 4 개시) |
| - 일본·브루나이 EPA (07. 6. 18 서명) | - EU·ASEAN FTA(07. 5.4 협상개시 공식합의) |
| - 중국·파키스탄 FTA(07. 7. 1발효) | - 싱가포르·우크라이나 FTA (07. 5. 8 개시) |
| - 일본·칠레 EPA(07. 6 일본비준완료, 07. 7 칠레비준완료) | - 한국·EU FTA (07. 5. 11 개시) |
| - 일본·인도네시아 EPA (07. 8. 20 서명) | - 일본·스위스 FTA (07. 5. 14 개시) |
| | - 칠레·말레이시아 FTA(07. 6 개시) |
| | - 뉴질랜드·GCC FTA(07. 7. 25개시) |

- 우선, 한국과 미국 정부는 지난 2006년 6월 제1차 공식협상 개시 이래 총 여덟 차례의 공식 협상과 고위급 협상 등을 개최하여 집중적으로 이견 조율을 시도한 끝에 2007년 4월 2일 약 10개월 만에 FTA 협상 타결에 성공함.
- 또한 일본은 지난 2007년 4월 3일 태국과의 EPA 서명을 필두로 칠레, 브루나이, 인도네시아 등과 각각 EPA 서명을 완료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지역무역협정 체결에 참여하고 있으며, 중국도 2007년 7월 1일 파키스탄과의 FTA 협상을 발효시킴.
- 그 밖에 캐나다는 9년이라는 긴 협상기간을 종료하고 지난 6월 7일 마침내 EFTA와의 FTA 협상을 타결했으며 대만은 파나마, 과테말라, 니카라과에 이어 지난 5월 21일 엘살바도르 및 온두라스와 3국간 FTA를 체결함.
- 한편 지난 2분기 동안 신규로 협상이 개시된 지역무역협정의 경우 일본과 칠레의 약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바, 일본은 지난 4~5월경에 호주, 인도 및 스위스와 각각 FTA 협상을 추가로 개시하였으며 칠레는 베트남, 말레이시아, 호주 등의 국가들과 각각 FTA 협상을 개시함.
- 또한 한국과 EU는 지난 5월 6일 협상출범 공식선언에서 상호간 수준 높은 FTA를 체결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지난 5월 11일 제1차 협상을 개시한 이래 지난 7월 16일~20일 제2차 협상을 개최함.

나. 세계 RTA 추진 전망

- DDA 협상 재개를 위해 지난 6월 21일 개최되었던 G4 포츠담 통상장관회의가 결렬되는 등 현재 DDA 협상 전망이 그리 밝지 않은 상황에서 세계 각국이 경제자유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및 경제발전 도모의 수단으로 FTA 체결 등 지역주의에 비중을 두고 있어 당분간 각국의 활발한 FTA 추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.
- 현재 여러 건의 FTA가 협상 중이거나 공동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2007년 하반기 중에도 추가적으로 다수의 FTA가 타결되거나 새로 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FTA 체결 및 발효 건수도 당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.
- 우선 금년 하반기에 협상이 추가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FTA로는 인도·스리랑카 CEPA(2007년 10월 예정), 일본·ASEAN FTA(2007년 11월 예정) 등이 있으며, 지난 6월 13

일 일본 의회의 비준을 획득한 일본·태국 EPA 및 일본·칠레 EPA가 금년 하반기 중으로 발효될 것으로 전망됨.

- 또한 금년 하반기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FTA 협상으로는 멕시코·페루 FTA (9월 17일 개시 예정), 요르단·카자흐스탄 FTA 등이 있음.

- 그 밖에 일본은 금년 하반기부터 미국 및 EU와 각각 FTA의 산업별 효과에 대한 민간연구를 시작하여 2008년 정부간 연구로 확대하고, 2009년 중순경 이들 국가들과의 FTA 협상을 개시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으며³⁾ 캐나다와 칠레는 지난 7월 17일 양국간 FTA 체결 10주년을 기념하여 현행 양국간 FTA를 금융서비스와 기타 분야로 확대할 계획임을 밝힘.⁴⁾

3) *Japan Today*(2007. 5. 23).

4) *Associated Press*(2007. 7. 17).